

항일의 전통을 이어받은 참다운 인민의 군대

전군장을 앞둔 인민의 가슴마다에 승리의 새겨지는 부름이 있다.

조선인민군!

《인민》은 말과 함께 나온

우리 혁명무력의 명칭,

세상에는 우리 인민군대처럼 인민

들로부터 우리 군대라고 친근하고

정성과 불리우는 군대, 인민의 아끼

없는 존경과 사랑을 받는 군대, 인

민과 맷수 없는 혈연적 뉘대를 이룬

군대가 없다.

자기 이름은 《인민》이라는 글자

를 세진 때로부터 장장 수십 성장

우리 인민군대는 군민대단결의 자랑

스러운 전통을 빛내이며 승리와 영

광의 자욱을 쟁여왔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항일혁명부

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이

어받은 진정한 인민의 군대이며

당과 수령의 령도를 받는 우리

당의 혁명적 무장력입니다.』

군민대단결은 우리 사회의 빛부리

이며 혁명의 천지대본이다.

지금도 새로운 주제 100년

대의 첫 기적에서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뜻깊은 말씀이 선

만군민의 실장을 울려준다.

인민군대는 항일빨찌산의 전통을

이어 군민대단결을 만세 같이 다져나

가는에서도 인민과 주동이 되고 선

구자가 되어야 한다.

항일빨찌산의 전통, 군민대단결!

군민대단결의 위대한 전통이 창조

되던 항일의 그 나날에도 주역의 노

로여가 아니라 유풍대와 인민의

함마을한 풍이 되어 유격구를 결사수

호한 소왕청방위전투가 눈앞에 어려

온다.

불과 두개 종대의 유풍대에

5 000여명이나 되는 적의 정에

부역과 대량하여 승리할 수 있으리라

고 누가 괴여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

는가.

일제는 엄청난 명력을 끌어밀고

비행기까지 동원하여 소왕청유격군

거지를 《토발》이라고 초토화작전을 벌였다.

히나 일제는 대항해를 당하고 불

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기성의 군사학으로써는 설명할수

없는 이 기작적인 승리는 인민위천의

승고한 려움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군대와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으로 알아오신것이

었다.

소왕청방위전투를 비롯하여 페어

린 항일의 전장마다에 그 얼마나 가

승즈거리를 군민대단결의 승고한 희록

을 펼쳐쳤던가.

유격대와 인민사이에 떨어진 협연

의 정, 군민대단결의 위력이 있어

조선인민혁명군은 강도 일제를 무찌

르고 조국해방의 역사적위업을 성취

할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나라았던 그 세월 일

제의 것은 선례와 멀지않은 불우한

정신을 찾을 수 있지만 되어있었던

이 나라의 청년들이었다.

그들에게 혁명의 군복을 입혀주시

고 조국과 인민의 참된 북무자로

기록수련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크나큰 도고와 심혈을 바쳐가

시였다.

그 나날에는 자주 평양학원과 보

간간부훈련소를 찾고 찾으시며 학생

들의 학습과 생활을 전여버이실정

으로 극진히 보살펴주시고 강의에 출

현에 청진에서 군사교육과 청진

훈련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품어

나가셨던 그들이 높이 모심으로

비롯한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들을

비롯한 군부대들의 앞장에 펼쳐 뛰

게 되었다.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승리와

평양의 성장인 군에게도 우리

인민대를 위해 한 수령님을 높이 모

신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되어졌다.

그 비결은 무엇보다 먼저 우리 군

대의 인민적 성격에서 찾아야 할것

이다. 인민의 아들들을 조직된

군대, 인민의 자유방법을 위해 싸

우는 군대,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

호하는 군대니 그런 군대를 인민

이 따르고 도와주지 않을수가 없는

것이다. ...

새로 창건된 청금군을 항일의 전

통을 이은 인민의 군대로 견실하는

것, 바로 이것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런 출연을 열렬히 축하해주시

는 것이다. ...

를 따라다녔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이야

기로 놀라워서 즉시 청년을 부

었보다 귀중히 여기신

것은 온 나라 청년들의

가슴마다에서 분분하는

인민대단결을 미루어

나온 것이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나날에

는 청년을 찾고 찾으시며 청년을

찾아내고 청년을 찾으시면서

는 청년을 찾고 찾으시면서</p

조선인민군장건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

진행

조선인민군장건
70돐경축 청년동
양예술선전대공연
『민족이 빛나는 불
멸의 전군업적』이
여기서 열릴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되
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희동지와 청년동맹일군들, 청년학
생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합창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

래』, 『김일성대원수 만만세』로 시작
노래,『내성조장과 민족기악중주 『군
민일치 노래부르자』』 등의 대제로운
그 악의 영원하리,『설회와 노래 『불
종목들이 읊었다.

온 철령』, 남성중창 『조선인민군가』,
출연자들은 활발한 전통을 계승한
훈성 4중창 『장군님은 명사수 우린
주체형의 혁명적무장력인 조선인민
무작위술의 혁명강

군으로 강화방법
시켜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평도의 혁명적
을 격조높이 칭
송하였다.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회색
의 천출명장들을
모시어 인민군대
70돐에 즈음하여
국영용과 경양청년
학생들의 상봉모임이
6일 청년중앙회관에
서 진행되었다.

모임에서는 조국에 대한 충성과
관광사인 공화국영웅 지영춘동지가
발언하였다.

그는 혁명의 새 승리를 향한 풍물
세로 온 나라가 둘러고 있는 장엄한
후우의 시기에서 조선인민군장건 70

돐을 끌고 올라가기 위해 봄날에
서 절세워인들의 손길 아래 우리 혁
명부역이 참다운 수령의 군대, 당시
군대, 인민의 군대로 강화방법이
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해방
후 주체형의 혁명적정부역인 조선
인민군을 창건하시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믿음직하게 수호할 수 있는 강
력한 군사적 담보를 마련해 주시였다
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대원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끊임없는 선군장정의 길을 이어가시
며 인민군대를 정치상적위력과 군
사기술적위력을 완벽하게 갖춘 투지
필승의 혁명강군으로 기워주신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의 전군위업
은 오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풀어나가게 이어
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는 경애하는
혁명강군의 위업을 험

기계 멀리 험난한 경로에 오는 인민군
부대들을 찾으면서 주체적인 전법을
파악한 적구상들을 세지
하시고 무리의 달력을
배포를 얻어주시며 최정
에 혁명강군의 위업을 험

기계 멀리 험난한 경로에 오는 인
민군부대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회색의 천출명장들을
따뜻한 손길 아래 인
민군인들이 사상과 신
념의 강자, 일당백의
군으로 자라나 조국보
위와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성스러운 길에서 영
웅적위력을 펼쳐온데 대

